



## 방울이의 일생

강철윤 (서울대학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1년)

**요** 새는 몸이 좀 가볍다. 아마도 맑은 날씨가 연일 계속되어서 그러나 보다. 나도 이 세상에 만들어 진지 어언 3일, 이제는 세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존재로 남고 싶다. 그래서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무엇을 찾아 보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나도 정든 깊은 산 개울 아저씨의 곁을 떠나 구름 누나에게로 떠나는 중이다. 햇빛 아줌마가 여비로 쓰라고 준 몇 kcal의 열량은 이제 거의 바닥났나 싶다. 그 긴 여행 동안 나와 길을 함께 한 친구들도 몇몇 있었지만 나는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높은 데서 내가 살던 세상을 바라보았다. 으응, 말로만 듣던 바다 광장이구나. 내가 아는 아저씨들도 무지 많이 있네. 나도 나이가 더 들면 바다 광장에 가볼 수 있겠지.

어, 어느새 거의 다 올라왔네. 아니,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사납기로 소문난 도시 마을 스모그 방울들이 나타난 것 같다. 재네들이 아마 원래는 착한 방울들이었는데 나쁜 가스들과 어울려서 저렇게 불량스럽게 된거였다지. 어찌 보면 너무 가엾기도 하다. 부모님이 저런 방울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눈 팔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혹시나 나의 충고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마디 해보았다. 그러면 되겠니? 세상을 바람직하게 살아야지. 흥, 이제 내맘대로 하긴 글렀어. 너도 이 근처에 있다가 매연한테 걸리지 말고 빨리 꺼져! 슬프다. 나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듯 싶다. 정말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가만 있자.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네. 안녕하세요? 권적운 형? 얼굴이 하얗서 멋있어 보이네. 응, 여기쯤일 텐데. 그 예쁜 새털구름 누나가 어디 있었더라? 응? 아, 저기구나. 안녕, 새털구름 누나? 어

머, 이제오니? 방울이 참 오랜만인데. 편하게 지내렴. 다른 구름 형, 누나들도 마찬가지지만 새털구름 누나는 참 친절하게도 항상 나를 포근히 감싸준다. 새털구름 누나는 내가 있어서 더 몸도 건강해 지고 몸매도 근사해 진단다. 그래, 이제 드디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나보구나. 이대로 계속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새털 구름 누나와 별로 지내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가야할 때가 온 것 같다. 새털 구름 누나도 이제는 챙겨줄 다른 방울이들이 많아져 몸이 많이 불어났고, 또 이 동네는 가끔 아래 동네 도시 암흑 지대에서 이산화황과, 일산화탄소과와 이산화질소과 조직 깡패 방울이들이 나타난덴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가끔 먹구름 아저씨도 술주정하며 번개를 던지는 바람에 요새는 신경이 너무 곤두 선 것 같다. 여기서도 나는 새털 구름 누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같다. 게다가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새털 구름 누나에게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것 같다. 아, 언젠가 나의 소망을 이룰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세상에 아무 쓸모 없는 존재일까? 새털 구름 누나가 모르게 밤늦게 바람씨가 운전하는 버스 타고 떠나야겠다. 안녕, 누나.

앗, 이런 불상사가. 바람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왕 먹구름 아저씨한테 걸렸다. 우와, 정신없어. 별로 이 버스에 탄 방울이들을 모두 땅으로 내던져 버린덴다. 우와 정신없어. 무지 빨리 떨어진다. 이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던 폭우일까? 땅으로 떨어지면 안될텐데. 최소한 산속 개울로라도. 사람들은 주위의 땅과 강에 떨어진 방울이들에게 온갖 오물들을 내던지며 괴롭

힌다는데, 아, 점점 정신이 몽롱해진다...

여기가 어디지? 어? 뭣말이 있네. 강물마을? 여기가 강인가? 근데 왜 사람들이 버린 오물들이 없지? 어? 강물을 살립시다. 캠페인? 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정말 다행이네. 참 무지 넓구나, 강물 마을은. 응? 방울이들이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도 따라가 볼까? 여기의 방울이들은 모두 바쁜 듯한 표정이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모두들 답이 제각각이다. 한 꼬마 녀석은 지하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며 밑으로 밑으로만 들어가고 어떤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면서 댐구경 하러 가신다고 하신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강물 마을이 지겹다며 햇빛 아줌마한테 용돈을 타 하늘로 돌아 간다는 당돌한 아이도 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결정했다. 그동안 자랐으니 이제는 어엿하게 다 자란 어른 방울이다. 이제는 정말 큰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싶다. 비록 많은 위험이 있다지만 넓디 넓은 바다 광장에 가볼 결심을 했다. 하늘에서 여행할 때 눈으로만 보았던 바다 광장. 이제는 나도 그곳에 가보자. 이거참, 정말 오래 걸리네. 도대체 얼마나 몰살 기차를 타야 바다 광장이 나오는 거야? 어 몰살 기차가 속도를 늦추네. 다왔나 보다. 눈앞에 푸르른 광장이 펼쳐졌다. 이야, 정말 대단해 보였다. 여기서는 내가 그토록 찾아 다녔던 꿈을 꼭 이루어 보겠다. 어, 그런데 왜 이러지? 되게 짜네. 게다가 모두들 말이 없다. 다른 방울이들 사귀기가 정말 어렵다. 모두들 제 나름대로의 할 일에 바쁘게 사는 것 같다. 아~ 이게 소외감이라는 걸까? 부모님이 말씀하신 외로움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인지 정말 몰

랐다.

실의에 빠져 있는 나에게 연로하신 방울이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이보게 젊은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자네같은 순수한 방울이들을 찾는다네. 지금 꽤 괴로운 모양이야. 한번 찾아가 보게. 정말인가요? 그래, 나랑 같이 감세.

정말이었다.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었고 물고기가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오염된 물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정작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자네 같은 젊고 깨끗한 젊은이들이 하나 둘 씩 저 사람들 눈에 띄어서 자신들의 고통을 깨닫게 할 수만 있다면 오죽 좋겠나. 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날 그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어느 한 작은 집의 수도관으로 들어갔다. 아후! 이제야 겨우 수도꼭지에서 나왔네. 응? 귀여운 꼬마아이네. 안녕? 응? 날 마시고 싶어하나봐. 이봐, 아직은 먹히고 싶지 않아. 꿀꺼덕. 이런. 순간 그 아이의 뺨속에서 그 꼬마가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어? 엄마, 물이 맛있어졌어. 나 앞으로는 이런 물만 마실래. 그러렴. 지금은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커서 네가 좋아하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렇게 맛있고 깨끗한 물을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할 수 있단다. 예? 그 말 정말이죠, 엄마? 그럼 나 열심히 공부할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여행할 필요도 꿈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음을 느꼈다. 지금 나는 평생의 꿈을 이룬 기쁨에 차 있다. 아! 즐겁다. 이제는 잠들어도 되겠군. ●